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설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Ⅱ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

이러한 때 건교위원장의 마음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한 마음에 경북도회 회장이신 최용락 회장께 전화를 했더니 박○○ 위원장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최용락 회장의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두고 계시고 조석으로 만날 때도 있는 등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올라오셔서 건교위원장을 같이 뽑자고 했더니 최용락 회장께서는 “협회 일인데” 하시면서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찾아 뵙고 조합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건의하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을 찾아 뵙기도 했습니다.

그 후부터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35명의 건교위원 전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비공제조합법 개정에 대한 홍보와 설득, 그리고 건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옛말에 ‘양반은 글 덕이요 쌍놈은 발 덕’이란 말이 문득 문득 생각나면서 무조건 발로라도 뛰어야 성공한다는 일념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밖에 더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35명의 의원님들 방에 일일이 찾아가서 의원이 안계시면 보

좌관계 홍보 겸 설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업법에 대한 업무는 보좌관실에서 관장을 하는 터라 이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하는 것을 협회독립 할 때부터 느끼고 경험을 했으니까요.

또 한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14대 국회 말이라 의원들께서는 시간 날 때 마다 선거구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기라서 국회에 계실 때 만나 뵙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때 매일 국회 본관에 위치한 건교위원회의 업법 개정 추진사항 파악을 위한 방문,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의원방문을 위해 매일 같이 출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교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과장을 즉시 즉시 방문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교동창인 김욱진 문화공보전문위원께서 많은 도움과 지원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 건교위원회서 본격적으로 공제조합

법 개정을 위해 업법개정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은 당시 여당간사이신 조○○ 의원과 야당 간사이신 이○○ 의원 외 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건교부에서는 54개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때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몸살이 날정도로 열심히 땀 결과 54개 개정법률안 중에 설비조합 개정안이 1순위로 올라갔다는 소식에 또 한번 놀라고 참 기쁘기 한량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 특히 이승무 당제3조정실장, 오용운 의원, 백승홍 의원, 조진형 의원, 이운수 의원, 김영배 의원, 하순봉 의원, 김효일 의원 등 많은 분들께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항상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설비공제조합법 개정안이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는 소식에 많이 당황을 했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원회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1순위나 2순위는 별 상관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소 기분이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법 개정 문제로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말썹이 나자 급한 상황이라서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와 그에 따른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드디어 설비공제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 하고 법제심의를 하기 위해 법제처로 법안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 더 다가왔다, 이렇게 고무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기 한량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법안이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건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국회로 가서 위원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나 회의는 오

후에 개회가 되었지요. 회의장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초조하게 진행과정을 살펴보다가 몇몇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저는 2층 휴게실로 올라가서 TV로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그 때 마지막으로 의원께서 “장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의에 오명 장관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이 있자 건교위원장께서 “이의 없습니까?”라는 말씀과 함께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선 의사봉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본 후 누가 있건 없건, 누가 보건 간에 개의치 않고 휴게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는 살았다 살았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하” 웃으며 소리를 지르며 희열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설비조합 설립 추진을 위해 의원 접대 따로, 보좌관 접대를 따로 하였습니다. 또 보좌관 접대는 꼭 야당의원 보좌관과 여당 의원 보좌관을 별도로 만나다 보니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 추진경비와 예산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예산과 판공비 등은 전임 회장에서 다 소진해버리다 보니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박인구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졌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또한 그 후 설비조합이 창립되고 업무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창립개시가 늦어지고 일부 회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경비 및 예산이라든지, 창업비 등등을 한푼도 계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호 계속〉